

## 學難成의 意味



東國大 總長 黃 壽 永

### I

「大學教育」誌에서 저더러 卷頭言을 써 달라고 하기에, 이 기회를 빌어 제가 大學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두어 가지를 말해 볼까 합니다.

大學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學難成, 즉 공부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공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가 하는 것은 구태여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이, 공부를 웬만큼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라는 것은 1,2년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단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重要한 것은 大學이나 大學院을 갓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마흔이나 쉰 또는 예순살이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II

공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朱子의 勸學詩를 대할 때마다 저는 늘 한 가닥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로되, 少年易老學難成 하나 一寸光陰不可輕이라. 未覺池塘春草夢인데 階前梧葉已秋聲이라. 결국 朱子는 學難成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었는가 하면, 寸陰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 연못의 꿈이 깨어나기도 전에 가을 오동잎 지는 소리 들린다는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寸陰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조바심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공부는 조바심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단위로 한다면, 이것

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게으름을 피워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공부는 그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와락 달려들어서 해 치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리듬을 따라 浮沈하면서 斷切됨이 없이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세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단번에 成果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에 성과가 나는 공부를 좋은 공부로 여긴다든지, 잠깐 배워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의 絕對的인 것으로 여기는 것 등은 모두 그러한 思考方式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라는 것은 공부하는 순간 순간마다 그 意味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그 당시에는 전혀 의미를 모르다가도 나중에 가서야 그 重要性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에서 조바심은 가장 경계해야 할 禁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大學에 들어와서 학생이 선택한 學科가 ‘適性’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때 大學教育의 중요한 문제로 되어, 教育當局이 그 문제로 腐心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데에 특정 학문 분야가 적성에 맞는다든지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大學教育 政策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년 공부를 해 보고 난 뒤에 그 분야가 자기의 適性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그처럼 많다는 것은 곧 공부에서 조바심을 가지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한두 해 공부를 해 보고 난 뒤에 다른 공부를 해야 하겠다고 쉽사리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信念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한다면,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지간에, 40살이나 50살 또는 60살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빛을 던져주는 중요한 發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한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證人이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III

大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선생을 믿고 尊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선생에 대한 信賴와 尊敬은 無條件, 絕對의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즈음이 말이 얼마나 陳腐하고 우습게 들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이 선생을 믿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教育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오늘날 大學教育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佛家에서는 教育의 過程을 讚歎, 勸誘, 懺悔, 隨喜, 回向의 다섯 단계로 나타냅니다. 즉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내용의 價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欽慕의 念에 가득차고 선생에게 배움을 간청하며, 배우는 동안 자신의 愚鈍함에 대하여 愧恥하고, 때로는 배움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오던 길로 눈을 되돌려, 마찬가지로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教育의 過程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讚歎과 勸誘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배워서 그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며, 학생이 그 내용에 대하여 讚歎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생에게 가서 무릎 꿇고 배움을 請하는 것은

선생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선생이 갖추고 있는 敎育內容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讚歎과 勸誨는 요사이 敎育學에서 말하는 ‘學習動機’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讚歎과 勸誨는 ‘學習動機’라는 것이 교육내용과 선생에 대한 尊敬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선생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겠지만, 그 존경이 無條件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그에 앞서서 선생이 그 존경에 합당한 實力과 人格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또 그 자체로서 妥當性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생이 선생 자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말일 뿐이며, 학생이 선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학생은 선생이 그 존경에 합당한 實力과 人格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判斷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며,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선생을 尊敬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바로 배움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생을 尊敬하지 않는 것, 또는 오히려 선생에 대한 존경을 相對化하는 점 등이,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 大學敎育의 가장 큰 阻害 要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學難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하나와 같은 하찮은 지식을 배우고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眞理를 터득한 양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선생의 實力이 어떠한지 人格이 어떠한지 하고 떠들면서, 이런 선생 밑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무슨 참된 공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나라 대학의 모든 선생이 동일한 정도로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重要な 것은 그들이 선생이라는 것, 그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을 앞지르는 것이 배움의 目的이요 成果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을 앞지르는 것은 선생을 앞지르겠다고 생각함으로써가 아니라, 선생을 충실히 따라감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배움의 길에 들어섰을 때 선생이 敎育內容의 化身이었듯이, 배우는 과정 내내 선생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이제 이만큼이면 선생을 앞질렀겠지 하는 순간에 홀연 선생은 저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 길이 끝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배움의 具現體로서의 선생도 언제나 손 닿을 수 없이 멀리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學難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학생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차적으로 선생에게 해당된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공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학생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선생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知的 謙遜을 가르치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생 자신이 知的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이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학생에게는 ‘너는 모른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말을 하면서 아테네 사람

들을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나는 모른다'는 말 뒤에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먼 배움의 길이 있다는 것이 暗示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도 선생은 교육내용의 具現體인 것입니다.

#### IV

지난 10년을 두고 한결같이 계속된 學園 騷擾는 그 자체가 교육내용의 구현체로서의 선생에 대한 尊敬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더욱 惡化시킨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根本에는 다시 學難成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가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眼目을 똑바로 하는 일에 專念하여야 합니다. 온 세상을 구한다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은 宗教에서와 마찬가지로 敎育에서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眼目이 똑바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세상을 가지런히 하겠다고 매드는 것은 결국 세상을 언제나 그 상태대로 놓아 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눈으로 보기에 바로 놓여 있는 것은, 바른 눈으로 보면 비뚤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이 하는 일, 학생이 하는 일, 모든 것이 여기에 기초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선생과 학생은 모두 같은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부추기고 격려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